

투데이 칼럼

펜은 부드럽게, 소방안전은 강렬하게

들 소 때가 서로의 몸을 부대끼며 인절부절 호흡기에 모여 목을 축이고 있다. 수풀 속에 몸을 비싸 움츠리고 암사자가 기회를 엿보고 있다. 순간, 바람이 멈추고 고요한 적막이 흐르는 초원에 사자의 사냥이 시작된다.



정희순

고창소방서 방호구조과장

이 광경을 숨죽이고 지켜보던 사람들은 '역시 약한 자는 강한 자에게 지배를 당하는게 자연의 섭리'라고 혼잣말을 한다. 그러나 단편적인 면만을 바라보고 약육강식이 자연의 섭리라고 확대해석하는 것은 우리의 관점이다. 사자는 생존을 유지할 정도만 본능적으로 사냥을 하는 것이며 그 이상 힘을 과시하지는 않는다. 강한 힘을 과시하지는 않더라도 위엄을 돋보이게 하는 것이 진정한 강함이다. 이를 재해석하면 부드러운 속에 강한 발톱을 숨기는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진정한 힘의 원천이 내면에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재된 위험요소가 중첩적으로 겹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건물에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오작동이 반복됨에도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지 못한 채 방치하고, 일일 빈번하며, 안전관리자를 새로 선임하는 과정에서 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은 불씨 하나에도 대형사고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 이유로 고창소방서 방호구조과장으로 취임하면서 고창군 소방안전을 위해 내면의 힘을 강화하고자 한다. 내면을 강화하기 위해서 크게 방호, 예방, 구조·구급 분야 행정적 업무와 현장대원들의 지원

이 유기적으로 맞물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특히 취약계층의 안전을 우선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이다.

방호분야에서는 의용소방대와 함께 취약계층 돌봄서비스, 화재피해 복구, 농촌 일손돕기, 화재예방 캠페인 및 교육을 실시하고 소방차길 터주기, 소화용수 주변 불법주차·정차 단속을 통해 골든타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신속한 현장도착으로 인명 및 재산을 지킬 것이다.

예방분야에서는 고창 관내 특성소방대상물 무결점 화재정보조사, 위험물 안전관리 및 가두검사, 관계기관 종합정밀검사·자체검사 강화, 철저한 건축물 완공검사, 취약계층 소

화기 무상보급, 산간오지 화재없는 안전마을 지정과 사후관리, 안전교육에 부합되는 시책 및 화재예방 언론홍보, 체험중심 안전교육 및 취약계층(노인, 여성, 장애인, 외국인) 맞춤형 교육으로 안전 습관화가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선제적 예방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마지막으로 구조·구급분야에서는 직접적인 현장대원과 가교적 역할로 소통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고창군민의 실질적인 생활 밀착형 행정을 지원할 것이다. 구조·구급대원의 계절별 맞춤 훈련, 현장활동에 필요한 장비 지원, 독거노인 및 취약계층 건강검진 대민지원에도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다.

화재 및 각종 사고를 방지하여 마음이 편안하고(安), 몸이 온전한 상태(全)를 만들기 위해서는 오직 고창군민을 바라보는 눈빛과 공감을 위한 문턱을 낮추고 예방을 통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내면을 강화하고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살기 좋은 행복한 고창을 만들도록 펜은 부드럽게, 소방안전은 강렬하게 발로 뗄 것이다.

사설

코로나 예방, 거리두기 실천이 답이다

여러 날째 코로나가 심각하다. 전국적으로 변함없이 하루 60명대 신규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다. 여러 번 말한 바 있지만 코로나 예방은 거리두기 실천이 답이다. 방역 당국이 말하는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켜야 한다는 이야기다. 최근에 신규 확진자가 된 이들은 오랜 시간 다단 외부 사람과 밀접 접촉에 의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열린 공간이 아닌 닫힌 공간에서는 사람 만남을 조심해야겠다. 특히 가깝게 마주 보며 장시간 대화를 나누는 것을 삼가해야 한다.

여기 다시 강조하거나 코로나 예방은 거리두기 실천이 답이다. 아무리 상대방이 믿음직한 사람이라도 보건 상태는 모르는 일이다. 보건자라도 발병하기 전까지는 건 강한 사람처럼 멀쩡하니까 말이다. 이같은 사실은 이제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이다. 그동안 우리 전 국민이 청정 환경을 유지해왔는데 최근들어 확진자 발생 소식이 도달이 경종을 울리고 있다. 다른 지역을 방문했다가 병을 옮긴 이들이 있어 우리 지역에서도 소리는 지역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게

아닌지 의심이 드는 것이다. 정말이지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두려움의 대상이다. 서울 부천 대전 광주 등지에서 신규 환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까닭이다. 코로나의 퍼지를 열원하고 있던가는 상황을 보면 여간 걱정이 아니다. 감염원을 알 수 없는 환자들이 속출하고 있으니 말이다. 다만 계획사와 방문 판매 회사와 물류센터 등에서 신규 확진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는 중에 교회와 사립 만남을 조심해야겠다. 모범이 돼야 할 종교계가 거듭 거듭 코로나 발병의 온상이 되고 있으니 난감하다.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 전북도는 다른 지역의 불행은 반면교사로 삼아야겠다. 청정 지역이던 우리 전라도에서도 한 두 명씩 신규 확진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긴장해야겠다. 누적 환자가 29명으로 다른 지역과 비교하면 양호하다지만 그래도 안심해서는 곤란하다. 거듭 당부하거나 코로나 예방은 거리두기 실천이 답이다. 도청이나 중앙안전재단본부나 보내오는 안전 문자를 세심하게 읽고 그대로 따르는 것은 중요한 미덕이라는 이야기다.

정세균 총리의 수소산업지원 약속

이제 수소 산업 쪽에 힘을 모아 야겠다. 때마침 정세균 국무 총리도 전북을 방문한 자리에서 수소 산업에 속도를 내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최근 들어서 중국의 전가자 생산업체인 바이튼의 경영난이 심각하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발빠른 대응이 필요한 지금이다. 바이튼과 위탁 생산을 체결한 명신에 피해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명신은 두루 잘 알고 있다싶이 군산형 일지리의 한축을 담당할 기업이다.

전북 발전은 도민 모두의 열원이 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너와 내가 따로 없다. 어려울수록 함께 하겠다는 정신태도를 가져야 한다. 그게 없다면 지역 발전은 요원하다. 다시 말하거나 지역 발전은 전북도만 이끌어 가는 것도 아니고 몇몇 기업들만 이끌어가는 것도 아니다. 지역 발전을 말할 때 마다 요구하는 것이 있다.우리 전북의 현안이 정부 부처가 눈길을 돌리도록 해야겠다. 군산형 일지리와 관련해 전북도는 정부 측에 수소 산업의 행방을 물어야 한다.

본보는 지난날 군산형 일지리 사업이 정해졌다면 빨리 밀고 나가

야겠다고 여러 번 촉구한 바 있다. 그런데 중국의 바이튼이 연말까지 6개월 동안 운영 중단에 들어가게 됐다. 그것은 명신의 전가자 위탁 생산 계약이 수포로 돌아갔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전북도와 군산시는 군산형 일지리의 성격을 재정의하지 않으면 안되게 됐다. 이 어려운 때에 정세균 총리가 수소 산업에 속도를 내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으니 아직 희망은 있다. 바이튼의 경우는 불행스런 일이지만 다른 돌파구가 남아있다는 것은 불행중 다행이 아닐 수 없다.

전북도가 오래 전부터 말한 그대로 수소자동차 생산은 군산형 일지리의 한 축이다. 이제 그쪽에 힘을 모아야 한다. 어쨌든 내명년까 지 미루지 말고 생산 작업을 서두르자는 것이다. 군산형 일지리가 정해졌다면 지체없이 밀고 나가야 한다.

전북도와 군산시는 군산 경제의 회복을 위해 덩벼들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발전을 도모한다고 할 수가 없다. 전북도와 군산시는 전기 자동차 생산이 어렵게 된 이때, 수소 자동차 쪽에 힘을 실는 믿음직한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란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레바논 필하모닉 “전세계에 화합과 희망을”



레바논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5일(현지시간) 레바논의 고대 도시 발벱에서 연주하고 있다. '문화 복원 행사'로 불리는 이 음악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과 레바논의 전례 없는 경제·금융 위기 속에서 전 세계에 화합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열렸다. 올해는 1966년 발벱 국제축제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코로나19 지침에 따라 무관객으로 열렸으며 지역 TV 방송과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생방송 됐다.

독자제언

메신저 피싱, 계좌번호로 확인하자

코로나19로 대면 접촉이 줄어들면서 전형적인 비대면 범죄인 메신저 피싱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메신저 피싱이란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과 같은 메신저를 이용하여 타인의 메신저 아이디를 도용해 등록된 가까운 가족이나 지인에게 메시지를 보내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메신저 피싱이 언론이나 관계기관의 홍보 및 예방으로도 알려져 왔지만 점점 금전을 요구하는 방식이 더 다양해지고 새로워져 알고 있어도 속수무책 당하기 일쑤이다. 메신저 피싱 피해 예방법이 널리 알려져 있으면서도 그 방법들을 오묘하게 피하는 수법으로 이전 진화하기 시작했다.

평소 가까운 지인을 사칭한다고 해도 나는 쉽게 알아챌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겠지만 많은 피싱범들이 메신저의 이전 대화 내용을 파악한 후 이와 비슷한 말투로 메시지를 보내기 때문에 의외로 눈치채기 어렵다고 한다.

과거 메신저 피싱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메신저로 금전 요구를 받을 때 전화를 걸어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전화를 걸어 피싱범이 제시하는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최근 몇 건의 민원이 접수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다.

하지만 접수 여부를 떠나 가족이나 지인이 아닌 타인의 계좌로 송금을 요청받는다면 무조건 의심해야 하고 절대 돈을 송금하여서는 안된다. 메신저 피싱범은 추적하기 어려워 본인 스스로가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본 독자는 코로나19로 경계가 어려운 때, 피싱을 예방해 그 어려움을 악화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이연희 고창경찰서 모양지구대 순경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러갈 것이라는 약속을 드립니다.

